

유해위험물 누출사고 예방 및 대응 전략

문일*

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

(ilmoon@yonsei.ac.kr*)

한국은 생산기준으로 화학산업이 세계5위에 이르는 화학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대응에 있어서는 그 위상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. 지난 2012년 9월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,563명의 주민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. 이는 비슷한 시기 독일 하노버에서 발생한 질산 누출사고에서 빠른 대응 및 수습으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. 국내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사고 이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‘유해화학물질 사고조사위원회’를 제안하며 이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사고를 거시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 위 기관은 안전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며, 평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. 또한 사고 발생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.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인 국가 안전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.